

2025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서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에베소서

메시지 14
그리스도와 교회의 위대한 비밀

성경: 창 2:18-25, 엡 5:25-32, 요 19:34

[창 2:18-25]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¹⁹⁾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흙으로 지으신 다음, 그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물을 각각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²⁰⁾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온갖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²¹⁾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²²⁾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²³⁾ 그 사람이 말하였다. /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 살 중의 살이구나! /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 여자라고 하리라.”⁽²⁴⁾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²⁵⁾ 그 사람과 아내는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엡 5:25-32]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²⁶⁾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²⁷⁾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²⁸⁾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²⁹⁾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피어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³⁰⁾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³¹⁾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³²⁾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요 19:34]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 I. 성경 전체는 로맨스,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구혼하시고, 결국 그들과 결혼하시는가에 관한 신성한 기록이다. 성경의 전체 계시는 우리에게 우주적인 한 쌍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 창 2:21-24, 아 1:2-4, 사 54:5, 62:5, 렘 2:2, 3:1, 14, 31:32, 겔 16:8, 23:5, 호 2:7, 19, 마 9:15, 요 3:29, 고후 11:2, 엡 5:25-32, 계 19:7, 21:2, 9-10, 22:17.

[창 2:21-24]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²²⁾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²³⁾ 그 사람이 말하였다. /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 살 중의 살이구나! /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 여자라고 하리라.”⁽²⁴⁾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아 1:2-4]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입니다.⁽³⁾ 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 당신의 이름은 쏟은 관유 같아요. / 그러하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좇아 달려가렵니다 — /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합니다. /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사 54:5] 너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 /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의 구속자 /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린다.

[사 62:5]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 네 아들이 너와 결혼하며 / 신랑이 신부를 두고 기뻐하듯 / 네 하나님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시리라.

[렘 2:2] “가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예루살렘의 귀에다 외쳐라. / ‘네 어린 시절의 그 다정함과 / 네 신부 시절의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하나니 / 그때 너는 광야에서, /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라다녔다.

[렘 3:1] “이렇게들 말한다. / ‘만일 어떤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였는데 / 그 여자가 그를 떠나 /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 그가 그 여자에게로 다시 돌아서겠느냐? / 그렇게 하면 그 땅이 / 몹시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 너는 이미 많은 애인들과 음행을 하였다. /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렘 3:14] 돌아오너라,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 남편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나는 성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너희를 선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렘 31:32] 그것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는데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겔 16:8] 그때 내가 네 곁을 지나다가 너를 보니, 네가 사랑의 때에 이르렀기에, 나는 나의 옷자락을 펼쳐 벌거벗은 너를 덮어 주었다. 주 여호와의 선포이니,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 너는 내 것이 되었다.

[겔 23:5] 오홀라는 나와 함께 머무는 대신 음행을 저질러, 자기 애인들 곧 가까이 있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음욕을 품었다.

[호 2:7] 그러면 그녀는 자기 애인들을 쫓아가도 / 그들을 붙잡지 못하고 / 그들을 찾아다녀도 찾아내지 못하여 / ‘가야겠다. / 내 첫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 그때가 지금보다는 나았으니까.’ 하리라.

[호 2:19] 나 너를 영원히 내 아내 삼으며 / 정녕 나 너를 의와 정의와 / 자애와 자비로 / 내 아내 삼으리라.

[마 9: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요 3:29]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듣는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기쁨이 충분합니다.

[고후 11: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엡 5:25-32]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²⁶⁾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²⁷⁾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²⁸⁾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²⁹⁾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피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³⁰⁾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³¹⁾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³²⁾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계 19: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21:9-10]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¹⁰⁾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계 22: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 A.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하와가 아담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창 2:21-22)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는다. 바로 이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고, 그분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한다.

[창 2:21-22]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데우셨다.⁽²²⁾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 B.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상호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 요 14:21, 23, 출 20:6.

[요 14:21]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요 14: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출 20:6]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애를 베풀 것이다.

- C.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사랑은 주로 남녀 간의 애정 어린 사랑과 같다 — 렘 2:2, 31:3.

[렘 2:2] “가서, 여호와와 이렇게 말한다고 예루살렘의 귀에다 외쳐라. / ‘네 어린 시절의 그 다정함과 / 네 신부 시절의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하니 / 그때 너는 광야에서, /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라다녔다.

[렘 31:3] 여호와께서 멀리서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 “참으로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 내가 너를 자애로 이끌었다.

- D.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을 들여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통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그들에게 주입하심으로써, 그들을 그분의 배필로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다. 즉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신다 — 시 119:140, 15-16.

[시 119:140] 주님의 말씀은 지극히 순수하니 / 이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시 119:15-16]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읊조리며 /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¹⁶⁾ 주님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렵니다.

- E.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된다. 그리스도의 재생산은 그리스도의 연인이 결혼을 위해 그리스도와 어울리도록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 아 6:13, 고후 3:18, 롬 8:29, 히 6:1 상.

[아 6:13]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미여 /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 “너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의 춤을 보듯 / 술람미를 바라보려 하느냐?”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롬 8: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히 6:1]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F.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 엡 5:32.

[엡 5:32]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II.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라는 예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림을 본다.

A.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예표인데, 이 하나님은 우주적인 참된 남편으로서 그분 자신을 위한 한 아내를 찾고 계신다 — 롬 5:14, 비교 요 3:29, 고후 11:2, 엡 5:31-32, 계 21:9.

[롬 5:14]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위법한 것과 같은 모양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죽음이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예표입니다.

[요 3:29]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듣는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기쁨이 충분합니다.

[고후 11: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엡 5:31-32]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³²⁾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계 21: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B.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 창 2:18.

[창 2:18]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1.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자신의 배필, 곧 짝(직역하면, 맞은편짝)이 되는 아내가 필요하시다는 것을 예표하며 묘사한다.

2. 비록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영원히 온전하실지라도, 그분의 아내인 교회가 없이는 완전하지 않으시다.

3.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담과, 교회를 예표하는 하와 모두를 갖기 원하신다. 그분의 목적은 ‘그들이 통치하게 하는 것’이다(창 1:26). 즉 그분의 목적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더하여 승리한 교회를 얻는 것, 곧 마귀의 일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더하여 마귀의 일을 전복시킨 교회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롬 5:17, 16:20, 엡 1:22-23).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롬 16:20]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엡 1:22-23]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III.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한 배필을 산출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 A. 하나님은 흠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지으셨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려가셨다.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온갖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 창 2:19-20.

[창 2:19-20]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흠으로 지으신 다음, 그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물을 각각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²⁰⁾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온갖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 B. 아내는 반드시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남편과 같아야 한다. 아담은 가축이나 새나 짐승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배필, 곧 자신과 어울릴 수 있는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 C.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한 배필을 산출하시기 위해 먼저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의 예표에서 볼 수 있다 — 요 1:14, 롬 5:14.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롬 5:14]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위법한 것과 같은 모양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죽음이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예표입니다.

- D.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 창 2:21.

[창 2:21]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1.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산출하기 위해 깊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배필인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엡 5:25-27).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의미한다(고전 15:18, 살전 4:13-16, 요 11:11-14).

[엡 5:25-27]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²⁶⁾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찢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²⁷⁾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전 15:18]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입니다.

[살전 4:13-16] 형제님들, 우리는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이들에 관해 알지 못하여,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¹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잠든 이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¹⁵⁾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든 이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¹⁶⁾ 왜냐하면 주님께서 큰 명령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11:11-14]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르가 잠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습니다.”라고 하시니, ⁽¹²⁾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주님, 그가 잠들어 있는 것이라면 회복될 것입니다.” ⁽¹³⁾ 예수님은 나사르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였다. ⁽¹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사르는 죽었습니다.

2.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해방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며, 생명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번성시키며, 생명을 재생산하는 죽음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자라서 많은 밀알을 맺는 것으로 상징되며(요 12:24), 이러한 밀알은 떡, 곧 몸인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고전 10:17).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고전 10:17]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3.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분 안에 있던 신성한 생명의 불이 해방되었고, 해방된 이 신성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조성하기 위해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었다 — 눅 12:49-50.
[눅 12:49-50]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⁵⁰⁾ 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4.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 안으로 일해 넣으셨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로서 그분과 어울리도록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었다.

E.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 창 2:22.

[창 2:22]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1.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는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예표이다(히 7:16, 요 19:32-33, 36, 출 12:46, 시 34:20). 이 영원한 생명은 창에 찢린 그분의 옆구리(요 19:34)에서 흘러나와, 그분 자신의 짝인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다.

[히 7:16] 그분은 육체와 연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서 세워지신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요 19:32-33]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³³⁾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요 19:36]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출 12:46] 그것은 한 집 안에서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며, 뼈를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시 34:20]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켜 주시니 /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네.

[요 19:34]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a.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나왔지만(요 19:34),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은 피 없이 갈빗대가 전부였다. 이것은 아담의 때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피를 통한 구속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 19:34]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b.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잠들어 계셨을’ 때에는 죄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는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이었다.

c. 피에 이어 물이 나왔는데, 이 물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킨다(출 17:6, 고전 10:4, 민 20:8).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는 이 신성하고 흐르는 창조되지 않은 생명을 예표한다(롬 5:10).

[출 17:6] 이제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고전 10:4]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민 20:8] “너는 막대기를 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여라. 너는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회중과 그들의 가족이 마시게 하여라.”

[롬 5: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2. 창세기 2장 22 절은 하와가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건축되었다고 말한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로 하와가 건축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부활 생명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표인데, 이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에게서 해방되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된 생명이다 — 요 12:24, 벰전 1:3.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벰전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3. 참 하와인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총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 생산이다. 그리스도의 요소 이외의 다른 요소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 창 5:2.

[창 5:2]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다.

4.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의 짝과 배필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 — 고전 12:12, 엡 5:28-30.

[고전 12:12]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엡 5:28-30]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²⁹⁾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피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³⁰⁾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 a. 우리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표현되실 수 있을 때까지 타고난 생명을 완전히 벗어 버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실재에 있어서 교회일 것이다 — 골 3:10-11, 롬 13:14 상.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¹¹⁾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롬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욕망을 채우려는 육체의 일은 꺾지도 마십시오.

- b.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을 살아 나타내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갈 2:20).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빌 1:21) — 이것이 교회이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빌 1: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 c.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을 그리스도는 인정하신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그분과 어울린다.
5. 성경의 끝에는 한 성, 새 예루살렘, 최종적이고 영원한 여자, 단체적인 신부, 어린양의 아내(계 21:9, 22:17)가 나오는데, 이 성은 세 가지 귀한 재료로 건축된 것으로서(21:18-21) 창세기 2장에 있는 예표에 대한 영원한 성취이다. 그러므로 예표에서 볼 때 창세기 2장 11 절과 12 절에 언급된 모든 귀한 재료는 다 여자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계 21: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 22: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계 21:18-21]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¹⁹⁾ 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²⁰⁾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귀감랍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풍신자석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²¹⁾ 또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21:11-12]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¹²⁾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열두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는 열두 천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6.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아담에게 돌아가 아담과 한 몸이 되었듯이(창 2:24), 그리스도에게서 산출된 교회는 그리스도께 돌아가(엨 5:27, 계 19:7) 그분과 한 영이 된다(고전 6:17). 한 몸인 남편과 아내로 예표된, 한 영인 그리스도와 교회는 위대한 비밀이다(엨 5:28-32).

[창 2:24]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엨 5: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계 19: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엨 5:28-32]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²⁹⁾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피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³⁰⁾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³¹⁾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³²⁾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 F.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이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 창 2:23-24.

[창 2:23-24] 그 사람이 말하였다. /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 살 중의 살이구나! /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 여자라고 하리라.” ⁽²⁴⁾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1.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순수한 산출물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부활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다(고전 12:12, 엨 2:6).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거듭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사는 이들만이 그리스도께 어울리고 그분의 짝이 될 수 있다.

[고전 12:12]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엡 2: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2. 그리스도는 이것을 보실 때 분명히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비교 창 2:23, 엡 5:30)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하와가 아담의 증가였듯이,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증가이다(요 3:29-30).

[창 2:23] 그 사람이 말하였다. /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 살 중의 살이구나! /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 여자라고 하리라.”

[엡 5:30]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요 3:29-30]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듣는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기쁨이 충분합니다. ⁽³⁰⁾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나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3. 아담과 하와가 한 몸, 곧 하나의 완전한 단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합해지는 것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고전 6:17).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연결, 곧 신성과 인성으로 구성된 완전한 단위인 우주적인 부부가 될 것이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 G.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하였다(창 2:24-25).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구속하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남편으로서, 아내인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결혼 생활을 하실 것을 묘사한다(계 22:17 상).

[창 2:24-25]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²⁵⁾ 그 사람과 아내는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계 22: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1.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주님, 즉 육체가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창조되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세 부분(영과 혼과 몸)으로 된 사람과, 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표현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과 결혼하심으로 합해지신다.
2. 끝이 없는 영원 안에서 그들은 신성하고 영원하며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한 영으로 연합된 생활, 즉 탁월하기 그지없고 축복과 기쁨이 넘쳐흐르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